

“극한 재미... ‘15초 건너뛰기’ 못할걸요”

조폐국 강도단에 맞서는 협상지역 대본 보고 세계서 통할 거라 확신 남북분단현실 녹아들어 개성 뚜렷 외국 동료들 韓작품만의 감성 극찬



‘할리우드 스타’ 김윤진(49)에게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높아진 케이(K)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남다른 듯 다가온다. 2004년 ‘로스트’ 시리즈를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드라마의 주연을 맡았던 만큼 더욱 그렇다. 그는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4일 선보이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그런 “변화”를 체감한 무대이기도 하다. 동시에 세계적 인기를 끈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다시 한번 해외의 관심을 새롭게 받게 됐다.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제작발표회를 연 그는 무대를 둘러보며 연신 “뿌듯하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더 많은 배우가 세계에 나가길”

2013년 미국 ABC 드라마 ‘미스트리스’의 주연으로도 활약한 그는 “더 많은 한국 배우들이 세계에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오래전 미국에서 왜 그렇게까지 홀로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한국 감독과 작가, 배



배우 김윤진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제작발표회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hh1147@donga.com

우들과 한국어 대사로 촬영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나라에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오징어게임’의 주역이면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강도단 리더 박해

수 등 해외에서 성과를 거둔 동료들을 향해서는 “확실한 개성이 있다”고 찬사했다.

“해외의 많은 동료가 한국 작품의 독특한 캐릭터와 감성적인 이야기가 돋보

인다고 말해요. 그런 부분들이 다채로운 매력을 자아내서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한국 배우들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도 분명 남다르죠. 다양한 요소가 잘 맞물려 케이 콘텐츠 열풍이 불어 정말 행복해요.”

● “유명 원작 부담되지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말한다. ‘종이의 집’ 한국판을 통해 ‘케이 콘텐츠’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낸다. 통일을 앞둔 미래 한반도에서 남북 공동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조폐국을 승격한 강도단과 맞서는 경찰청 위기협상팀장이다.

“원작이 정말 유명해 ‘이걸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됐어요. 하지만 대본을 보고는 세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현실을 녹여내 우리만의 개성을 드러내 이야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강도단이 조폐국을 터는 원작의 핵심은 압축하되 한국적인 매력을 더해 기대가 커요.”

그는 강도단 우두머리이자 천재 지략가 ‘교수’ 역의 유지태를 비롯해 박해수 등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지만 제작현장에서는 “엄마 같은 따뜻함”으로 동료들을 푹푹 문지려 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

“강도단의 활약상이 극의 재미예요. 그에 못지않게 경찰 이야기도 박진감 넘치게 느껴지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행여나 지루해져 ‘15초 건너뛰기’ 버튼을 누를 일은 없을 거예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임시완

도경수

임시완 ‘비상선언’ 도경수 ‘더 문’ 대표 연기들, 스크린에 돌아온다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대표 연기들’ 임시완과 도경수가 스크린에 돌아온다. 이들이 각각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과 ‘신과함께’의 기운을 이어받아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보인다.

임시완은 ‘더 킹’, ‘관상’ 등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이자 제작비 250억 원 규모의 대작 ‘비상선언’(제작 ㈜매그넘나인)으로 8월 극장가를 찾는다. 테러로 무조건적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로, 임시완은 베일의 싸인 승객 역을 연기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캐릭터 소개를 아낀 정도로 극중 사건의 키를 쥐 인물이다.

특히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는 20일 제작보고회에서 “대단한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었다. 이런 대작에 캐스팅됐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 촬영장에 가서야 내가 출연하는 영화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경수는 하반기 개봉하는 ‘더 문’(제작 블라드스튜디오)으로 흥행에 도전한다. 그에게 ‘1000만 연기들’ 타이틀을 안긴 ‘신과함께’ 시리즈의 김용화 감독이 연출한 신작으로, 달 탐사를 소재로 한 SF영화다.

도경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우주에 고립된 탐사대원을 연기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으로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달 탐사에 나설 전망인 조니 김을 모티브 삼은 캐릭터이다. 항공우주센터장 설경구와 호흡을 맞춘다.

도경수는 “훌륭한 제작진과 작품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최고의 현장이었다”고 돌이키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승미 기자

‘BL’ 특별전부터 전문 OTT까지 등장

(Boy's Love)

드높은 인기 업고 마케팅 활발 내달 개막 부천영화제 ‘특별전’



‘BL의 열풍’을 몰고 온 박서함(왼쪽)과 박재찬 주연의 왓차 오리지널 드라마 ‘시네틱 에라’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왓차

왓차 오리지널 시리즈 ‘시네틱 에라’가 몰고 온 BL(Boy's Love·남성 동성애 코드)의 로맨스물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마다 관련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BL을 전문으로 다루는 플랫폼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며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BL 특별전을 마련한다.

● 영화제의 ‘특별 섹션’

7월 7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BL 특별전:보이즈, 비, 러브’(Boys, Be, Love)를 연다. ‘하숙집 오! 번지’, ‘오션 라이크 미’ 등 7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시네틱 에라’ 극장판도 최초 공개하며, 연출자 김수정 감독의 이야기기도 듣는 자리다 마련한다.

영화제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BL이 이제 강력한 팬덤을 가진 콘텐츠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창작자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면서 팬덤 문화의 고민을 담기 위해 특별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BL 콘텐츠가 다양한 이야기와 무대로 진화하면서 신인 연기자들은 물론 아이돌 스타들도 출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룹 오메가엑스의 재한과 예찬이 이미 웹드라마 ‘소년을 위로해줘’ 출연을 확정했다. 한 연기자 소속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특정 이미지를 염려해 쿼어 콘텐츠 출연을 꺼려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BL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관련 오디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BL 콘텐츠를 잡아라

티빙은 ‘시네틱 에라’ 이전에 가장 성공한 BL 콘텐츠로 꼽힌 ‘나의 별에게’의 시즌2를 매주 일요일 공개하고 있다. 웨이브도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콘텐츠 ‘남의 연애’와 ‘매리퀴어’를 선보인다. BL 요소를 예능 콘텐츠에 녹여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L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플랫폼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OTT ‘헤브라’로, BL 콘텐츠 강국’으로 인식돼온 태국의 드라마 ‘큐티파이’ 주연 배우들을 초청, 26일 국내 팬미팅을 연다. 서울 강남구 예림당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무대의 티켓이 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되면서 BL 콘텐츠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보여줬다.

전 세계 157개국에서 서비스하는 헤브라의 장지혜 이사는 “각각 다른 취향을 존중받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기적 유행에 머물지 않고 이야기 안에서 로맨스 판타지가 살아 숨 쉬는 콘텐츠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소녀시대

‘서머퀸 대전’ 갈수록 점입가경

소시 완전체로 돌아오고 블핑 컴백 신인부터 대표 걸그룹까지 총출동

걸그룹의 ‘대목’이라는 여름 가요시장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신인부터 케이팝을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서머 퀸’에 도전하기 위해 잇달아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케플러, 이달의 소녀를 시작으로 프로미스나인, 소녀시대, 블랙핑크, 에스파, 있지 등 글로벌 무대를 활약하고 있는 걸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출격한다. 매력과 개성을 앞세운 여름 콘셉트의 ‘서머 송’으로 국내 컴백과 동시에 전 세계 공략에 나선다.

케플러와 이달의 소녀가 나란히 포문을 열었다. 20일 각각 미니앨범 ‘더블라스트’(DOUBLELAST)와 ‘플립 댓’(Flip That)을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타이틀곡 ‘업!’(UP)과 ‘플립 댓’은 이들이 데뷔 이후 처음 선보이는 여름 시즌 음악이다.

케플러는 최근 쇼케이스를 열고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춰 청량함과 상큼한 매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달의 소녀는 “청량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더해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최근 걸그룹 오디션프로그램 ‘퀸덤2’에서 2위를 차지한 이달의 소녀는 여세를 몰아 8월 첫 월드투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들에 이어 프로미스나인이 27일 미니앨범 ‘프롬 아워 메멘토 박스’(from our Memento Box)로 돌아온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음반으로 여름 가요계를 정조준한다”면서 “‘서머 퀸’으로 변신할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걸그룹들의 잇단 출격은 7월에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2세대’ 걸그룹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돌아오고, 블랙핑크도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한다. ‘4세대’ 대표주자인 에스파와 잊지의 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에스파는 7월 8일 미니앨범 ‘걸스’(Girls)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매한다. 이에 앞서 24일 영어 싱글 ‘라이프 투 쇼트’(Life's Too Short)도 내놓는다. 모두 글로벌 시장을 향한 행보다. 이미 미국의 음악 레이블 워너레코드와 음악 콘텐츠 유통 및 마케팅 프로모션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도 맺었다.

있지도 마찬가지다. 7월 15일 미니앨범 ‘체크메이트’(CHECKMATE)를 전 세계 동시에 선보이고 첫 월드투어도 시작한다. 8월 6·7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8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선배’들의 활약도 예고되어 있다. 블랙핑크가 7월 초 새 앨범을 내놓는 데 이어 2007년 이후 케이팝의 대표로 꼽혀온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며 8월 새 앨범을 선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BTS ‘옛 투 컴’ ‘달려라 방탄’ 빌보드 핫100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신곡 ‘옛 투 컴’과 ‘달려라 방탄’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동시에 진입시켰다. 22일(한국시간)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10일 발표한 앨범 ‘프루프’의 타이틀곡 ‘옛 투 컴’과 수록곡 ‘달려라 방탄’은 각각 ‘핫 100’에서 13위와 73위에 올랐다. 최근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엔솔러지 앨범 ‘프루프’에 데뷔한 2013년부터 9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1막을 마무리하는 노래인 ‘옛 투 컴’을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려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유 겨냥 악성 게시물 누리꾼 징역형 집유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2019년부터 인신공격과 악성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 A씨에 대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속사는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젓은 마스크 논란 ‘사이 흠뻑쇼’ 방역 강화 밝혀

가수 사이가 ‘흠뻑쇼’로 불거진 ‘젓은 마스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공연 시작 전 공연장을 전체 소독하고, 방수 마스크 1장을 제공하는 기존 방침에 더해 모든 관객에게 KF94 마스크 3장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관객들은 안내 절차에 따라 마스크를 3회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젓은 마스크를 이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추가 조치다. 공연은 7월 9일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열린다.